

## 끝씨에게

갈채를 보내는 영화와 연극,

그리고 책들

끝씨를 말하는 영화와 연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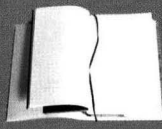
### ■ 영화\_슈퍼스타 감사용

1982년 프로야구 원년, 아마추어 직장야구인이었던 감사용은 팀에 왼손투수가 없다는 이유로 '삼미슈퍼스타즈'의 투수가 된다. 슈퍼스타즈라는 이름과는 달리 스타선수 한 명 없는 삼미슈퍼스타즈는 개막 후 끝없는 연패의 불명예를 안게 되고, 감사용 역시 선발 등판 한 번 하지 못하고 '패전처리 전문투수'로 낙인찍힌다. 꿈의 1승을 위해 분투한 투수 감사용의 휴먼스토리를 보여주는 영화다. “〈록키〉가 권투영화가 아니고 〈빌리 엘리어트〉가 발레영화가 아니듯 〈슈퍼스타 감사용〉은 우리 시대 ‘감사용’을 위한 영화다.”

### ■ 연극\_삼류배우

단역배우로 살아가는 영진은 기필코 햄릿역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산다. 방송스케줄 때문에 햄릿역을 맡은 주연이 빠지게 되자, 영진이 주연을 맡게 되는 일대 기회가 온다. 그러나 흥행을 고려한 제작자의 입김으로 영진의 주연은 무산되는데... 일류배우로 평가받지 못했지만 연기자의 길을 오직 자신의 업으로 생각하며 살아간 연극배우의 '일류인생 일류연기'를 보여주는 연극이다. 가족 앞에서 영진이 〈햄릿〉 1인 모노드라마를 펼치는 대목이 인상적이다.

끝씨를 말하는 책들



### ■ 달려라! 하루우라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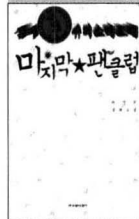
시게마츠 키요시 지음 | 최영혁 옮김 | 청조사 | 155쪽 | 값 7,800원



언제나 지기만 하는 경주마 하루우라라. 사람들은 왜 하루우라라를 꾸준히 응원하고 경주시키는 걸까? 약골로 태어나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머쥐지 못했지만 늘 열심히 레이스에 임해 온 하루우라라의 모습은 실패와 좌절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준다. 《비타민 F》로 나오키상을 수상한 작가 시게마츠 키요시가 희망의 증거 하루우라라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전한다.

### ■ 삼미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지음 | 한겨레신문사 | 304쪽 | 값 8,500원



《지구영웅전설》의 작가 박민규의 두 번째 장편소설. 삼미슈퍼스타즈의 어린이팬클럽이었던 주인공 '나'의 성장 기록을 담고 있다. 작가 박민규가 피짜구단 삼미슈퍼스타즈에 애정을 갖는 까닭은 늘 패배로 점철된 우리 시대의 모습이 그것과 닮은꼴이기 때문. 프로가 되기를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와,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가치를 지키려는 이들에 대한 연민을 담고 있다.

